

# “이대로 가면 죽는다”... 與 재선 모임서도 조국 사태 자성론

### 박완주 “혁신 성역없어... 모든 것 안 바꾸면 죽는다”

### 조웅천 “기득권 못 버려... 조국 문제 짚고 넘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은 12일 간담회를 열고 지도부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민주당 상황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참패한다는 위기 의식이 공유됐으며, 상대 진영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반영해 철저한 쇄신을 이뤄내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컨시

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격려차 참석해 “다들 이대로 가면 정말 내년에 죽는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 정말 모든 것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패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와 반대 논리의 진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분

들의 목소리를 담아 쇄신의 재료로 쓰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조선의원들이 보궐 참패 반성문을 통해 지적했던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파로 꼽히는 조웅천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조선원 성명 발표를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쪽으로 됐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그건 오만한 거다. 기득권을 버리

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지도부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선 “당내 경선에서 지금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가면은 그냥 앉아서 죽는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들도 신선하다고 보기에 합량 미달”이라며 “초·재선들이 좀 나와줬으면 해서 찾고 있다고 들었다. 선출이 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참신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민주당 재선의원 49명 중 약 40여명 의원들이 참석할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들은 조선의원들의 행동에 힘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시턴호텔에서 열린 4·7 재보선참패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진로를 위한 재선의원간담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은 김철민 의원의 발언을 참석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실어주는 동시에 추후 정례모임을 통해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당 쇄신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국힘-국당 합당 논의 살아싸움 “먼저 입장 정리하라”

### 주호영 “먼저 입장 정리 요청” 안철수 “국힘도 의견 통일해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양당은 상대당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전당대회와 합당의 선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4·7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하려면 그 쪽 뜻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 안 대표가 먼저 입장 정리를 하라는 압박이다.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제 문제는 뒷일이고 합당 등 당의 큰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그 후순위의 일이라 생

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까지는 국민의당이 합당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15일부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도 합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논의 착수 시점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의힘과 언제 어떻게 합당하려 하나’는 질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고 저희도 오늘부터 시도당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14일까지 답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수요일까지 국민의힘은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던 의미인가. 그것부터 여쭙보고 싶다”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서 공식적 입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안다. 일부 언론에서 저희가 주춤하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금태섭 측 “野통합, 安 합류해도 참여 안해... 창당 구상은 아직”

### “정치인은 창당 아니면 입당... 무소속 쉽지 않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함께 하는 야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

스와의 통화에서 “야권 통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인데, 거기엔 들어가진 않겠다고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추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

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더라도 합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질문에 “(금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다”며 “정당 관련해서는 정치인이 결국 정당을 만들거나, 들어가거나(다). 무소속은 쉽지 않으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측면도 있다.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뜻이 모이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적었다.

## 與, ‘서울형 거리두기’ 오세훈 견제 “방역원칙에 혼선 주지 않을지 우려”

### “당국 유희시설 영업금지하는데 심야영업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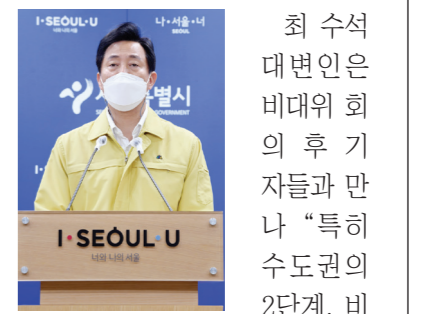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하는 코로나19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역원칙에 혼선을 주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유희시설을 늦은 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업종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유희주점 등에 대해 장기간 금지됐던 야간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지만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3주 연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유희시설 집합금지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서울시 간에 여러가지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고 예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치의 방역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벌써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